

【서식5】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2023. 9. 7.(목) 14:00			장소	시청 공감회의실(본관 4층)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박**, 박**, 박** ※ 문화소통분과 박** 위원장 불참으로 이** 부위원장 참석		
	8	5	3			
안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추진상황, 한마당 총회,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안내 및 논의					
<div>○ 회의내용</div> <div><div>-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추진상황 안내</div><div>- 2023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안내</div><div>-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안내</div><div>- 회의 안건 질의응답 및 논의</div></div> <div>○ 의결사항</div> <div><div>- 의결사항 없음</div></div>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위 원	발 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기 주민참여예산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오늘 회의는 인천시로부터 2024년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심사결과 선정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추진상황과 2023년 주민참여예산 한바당 총회 개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먼저, 참여예산팀장님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람.
참여예산팀장	안건설명 -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추진상황, 2023년 주민참여예산 한바당 총회 개최 안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안내
위원장	설명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람.
조**	보건복지분과는 25개 사업이 있는데 모니터링 우수사업 선정은 분과별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선정하는게 맞는지?
참여예산팀장	그러함.
부위원장	시행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야하는거 아닌지? 25개 사업을 다 실행한다는 뜻인지?
참여예산팀장	모니터링 대상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위원장	선정된 사업 중에서 모니터링하는게 맞음.
이**	모니터링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건지?
참여예산팀장	별도 인센티브는 없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우수사업을 홍보하게 됨.
이**	우수사업 선정으로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음. 우수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위원장	우수사업 선정이 되면 표창 등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건의함.
참여예산팀장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	모니터링할 때 예산낭비도 지적하게 되어있음. 담당부서 통해서 관리카드 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필요함.
참여예산팀장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이**	그러함.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구체적 자료를 안주려고하는 경우가 있음. 제도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함.
참여예산팀장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 관리카드를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부위원장	작년의 경우 사업이 끝난 후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있었음. 사업이 종료된 후라 확인할 부분이 없음.
참여예산팀장	서면모니터링 시 현장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종료된 사업이라 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진행 중인 사업을 현장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임.
부위원장	모니터링 순서가 뒤바뀜. 서면모니터링 보다 현장모니터링이 우선시 되어야함.
조**	각 사업마다 사업일정이 달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고지해주면 좋겠음.
참여예산팀장	우선 서면모니터링 시에 관리카드를 통해 사업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현장 파악이 용이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 대상을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시면 됨.
부위원장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별로 정하는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옴.
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장모니터링 사업과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음.
위원장	지난번 계양산을 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함. 기존 4천만원 예산이었는데 모니터링 후에 3천6백만원으로 4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으나 예산절감 사항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음.
참여예산팀장	그런 경우 모니터링 시에 관련 공무원에게 예산절감 내용 등 관련 문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음.
위원장	하반기에 현장을 가면 사업은 이미 종료된 상황으로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가 없음.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한창 바쁜 시기에 모니터링을 하다보니 참여가 힘든 실정임. 모니터링 기간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음.
참여예산팀장	보통 부서에서는 1~2월에 사업을 구상하고 6~7월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5~6월 정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정을 앞당겨 3~4월에 모니터링을 하게되면 현장 모니터링을 할만한 사업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음.
위원장	모니터링 대상 중에서 조금 일찍시작하는 사업이나 관심사업을 하나라도 일정을 당겨서 보면 제대로 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함.

이**	모니터링 시 불법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음. 또한 사업 구체화 단계에서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변질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임.
참여예산팀장	서면모니터링이나 현장모니터링을 할 때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러 나옴. 거기에서 불법적인 것을 지적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어떤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리에서 담당공무원과 토론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	모니터링 시에 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문서상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서로만 끝났음.
참여예산팀장	조례상에도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회의를 하고나서 회의록을 다 공개하도록 하고있음.
이**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함. 그런 피드백이 없다면 모니터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올해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고 방식이 바뀌면서 예년에 비해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참여들을 잘 안하려고 하심.
참여예산팀장	모니터링 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회의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함. 모니터링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면 지적에 대한 피드백이 되도록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음. 또한, 작년에 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감사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2024년도는 주민참여예산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임. 즉 작년에 비해 올해 주민참여예산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예산액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	올해는 담당부서와 합의가 안되면 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시스템임. 담당부서에서 부적격이라고 하면 사업을 선정할 수 없음.
참여예산팀장	현 구조로는 해당부서에서 부적격으로 검토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될 수는 없음. 다만, 분과위원회의 심의 시 담당부서의 동의절차만 선행된다면 선정될 수도 있음.
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음. 제 경험에는 공무원분들이 부적격 사업으로 검토해도 조금 변화를 주거나 실행가능하고 좋은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돌린 경우가 있음.
참여예산팀장	감사결과에 사업부서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업을 무리하게 선정을 했다는 내용도 있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음. 부서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면 선정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	은평구 등 우수사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시행을 시키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함. 담당부서에서 모든걸 판단을 하게끔 하는건 주민참여예산 목적이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함.

참여예산팀장	현 시스템 상으로는 분과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분과 위원분들과의 토론과정을 거쳐 해결하셔야 할 것임.
위원장	환경분과는 41개 사업 중 1개가 선정됐었으나, 1개사업도 공익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부결시켜 1개사업도 없음. 인천연구원에서 41개 사업중 40개 사업을 중복사업 등으로 검토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할 부분은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음. 좋은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 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쪽으로 해주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함.
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음. 주민투표를 13개 사업에서 3개 투표 하는데 13개 사업중 몇 개가 선정이 되는건지? 총회 관련 분과별 2분 이내 주민의견서를 발표하는데 저희 분과는 내년도 사업이 없는데도 발표를 해야 하는지?
참여예산팀장	첫 번째, 투표에서 득표수가 많다고 선정이 되고, 득표수가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되는건 아님. 시민들의 선호정책 조사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임. 두 번째, 주민의견서 발표 시에 선정된 사업이 있으면 선정사업도 말씀해주시고, 분과위 주관 예산정책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됨.
부위원장	주민투표 홍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밖에 없는지?
참여예산팀장	아님. 보도자료도 배포하여 13개 신문에 나온 것을 확인함
부위원장	길거리 상에 현수막 홍보는 없는지?
참여예산팀장	현수막 홍보는 안했음. 네이버 홍보, 각 군구 및 시 사업소에 주민투표 포스터를 제작배부하고, 시청 곳곳에도 포스터를 게재하여 시민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간사	제안사업에 대해 심사를 할 때 가능하면 제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람.
이**	제안사업이 올라오면 담당부서에서는 관계법령에 어긋나는지 이런 부분만 판단해주고, 위원님들의 역량을 믿어야함. 결론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끝까지 가보면 할 수 있는게 없음.
위원장	이후 일정도 있으니 금일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의견개진이 없는걸로 알고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음.